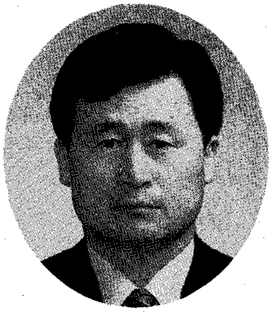
모든 낙농가가 함께 참여할 때 미래를 보장받는다



김동진
서울우유 자조금 추진위원

"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스스로가 소비홍보 뿐만 아니라 자연식품으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다.

낙농선진국 모두가 어려울 때에 자조금으로 낙농가 스스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세계낙농을 선도해가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제성장이 승승장구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듯 하였으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I.M.F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파고가 우리의 경제를 덮쳐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지만 더구나 큰충격을 받는 것은 축산 농민들.

환율 인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후사료 및 조사료 값이 하늘높은 줄 모르고 뛰었고 여기에 따라 우리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들도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

우유 소비는 둔화되고 생산은 넘치고 송아지와 도태우 가격은 떨어져 더욱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정부에서는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추었고 더 나아가 원유가격을 5.4%정도 인하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이 시점에서 원유가격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데로 내린다면 우리나라 17,000여 낙농가 모두는 어떻게 살것인가? 불보듯 뻔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어려울 때 낙농선진국들은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자.

미국은 이미 1951년 부터 자조금에 대하여 거론되었고 1983년에는 무임편승자에 대한 불만문제 등이 제기되어 자조금 제도를 법제화 하여 농민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여 왔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이미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스스로가 소비홍보 뿐만 아니라 자연식품으로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다. 낙농선진국 모두가 어려울 때에 자조금으로 낙농가 스스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세계낙농을 선도해가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 보다 가격 지지정책도 뒤떨어지고 생산구조도 열악한데다 선진국에 수입 개방 압력까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누구엔가 의존만 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낙농을 지키는데 노력이 있어야 겠고 그것이 자조금 제도 이기에 98.6.30에 있은 1차 낙농 자조금 추진위원회 대회에서 원유 1kg당 5원씩 3개월간 거출하여 낙농자조금을 조성하기로 결의 하였다.

일부 기업화된 낙농가는 시장경제 원칙에 의하여 도태될 농가는 빨리 도태되어 안정을 찾아야 된다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낙농가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적인 발상에서 생각해 봄직한 일이라 생각되지만 그러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두가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어려운 불황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17,000 낙농가 모두가 의무적으로 자조금 조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럴때에 우유 및 유제품에 소비촉진 활동(소비홍보 및 광고 · 소비자 영양교육 · 조사연구 · 제품개발)등 필요한 경비로 지출되어 낙농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낙농가가 함께 참여 할 때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낙농산업이 될 것이다.